

1920-30년대 ‘모성담론’에 관한 연구
- 『신여성』에 나타난 어머니 교육을 중심으로 -

전 미 경*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

A Study of ‘motherhood discourses’ during 1920s and 1930s
- Focusing on mothering education written in 『Shinyeosung』

Jun, Mi-Ky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attempts to describe motherhood discourses in colonial period based on analysing 『Shinyeosung』 (1923-1934). The motherhood discourses written in 『Shinyeosung』 were generally divided as follows: ① women’s motherhood ② recognition of the children ③ eugenic ④ care and education of the children ⑤ disease of the children and their nursing ⑥ pregnancy and delivery. Main writers were also experts like medical doctors and professors.

It was science that contributed to highlighting the greatness of mother. Science put emphasis on how ‘pregnancy, delivery, care’ are challenging and dangerous job. Accordingly, every woman, regarded as a potential mother, was requested to equip herself with all kind of skills in care. As new women’s role were restricted within private area, they were cut off from various public issue. This type of motherhood became an essential part of ‘modern family’.

주제어(Key Words) : 모성담론(motherhood discourses), 어머니됨(motherhood), 어머니 노릇(mothering), 어머니 교육(mothering education), 신여성(new woman), 의학담론(medical science discourses).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교신처자: 전미경(preba@chol.com)

I. 서 론

가정 교과목은 1차(1954년)에서 7차(2001년)에 이르는 교육과정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임신과 출산, 아동발달, 육아 영역은 가정과 교과내용의 핵심 중 하나였다. 이러한 일면은 가정교과목이 처음 생겨난 한말부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이것은 초기 가정 교과서 및 가사 교과서의 교과내용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 가정의 교과내용에 '육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시의 이상적 여성상이 '현모양처'였음을 미루어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 현모양처주의는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였기에 이광수는 "여자교육은 모성중심의 교육이라야 한다"고 목청 높여 주장하였다.³⁾

그러나 식민지 시기 현실적으로 학교와 교과서만으로는 여성을 현모양처로 만들 수 없었다. 여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여학생이 아닌 대다수의 여성을 향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여학교의 설립과 함께 학교 밖 사회에서 여성을 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신문과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모아졌다.

당시 교육은 크게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대별되었다. 즉 가정에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에 의해 실시되는 가정교육(家庭教育)과, 학교라는 근대적 공간에서 교사에 의해 실시되는 학교교육, 가정과 학교 너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이 그것이다. 사회교육에는 각종 연설회와 토론회 등이 포함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형태가 신문과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한 교육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언론 매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발행목적은 정보의 유통과 함께 '계몽성'에 있었다. 특히 조선이 열강의 침탈아래 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어

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야만적인 백성을 근대적 국민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교육'은 구국의 등불로 조망되는 신문과 잡지가 새롭고도 문명한 지식의 유통에 더욱 주력하도록 만들어서, 신문과 잡지는 새로운 문물, 새로운 도덕,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학교 밖 사회의 대표적 교육의 장이었던 '잡지'에서 이루어진 모성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잡지가 갖는 당시의 '계몽성'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1920-30년대 새로운 사회적 범주로 떠오르고 있었던 신여성⁴⁾을 향한 어머니 교육의 구체적 양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어머니란 현모양처의 핵심적 요소로 일제 식민지 정책은 여성교육을 통해 현모양처의 신여성상을 수립하였으며, 조선 내 민족주의 세력 역시 신여성다운 참된 삶의 지표로 현모양처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담론의 결과로 상당수의 신여성은 자의로 혹은 타의로 가정으로 돌아가 현모양처가 되어야 했다.⁵⁾ 사실 식민지 시대를 포함하여 모성은 현재의 여성과 가족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어이기에 많은 선행연구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⁶⁾ 그러나 현재 신여성의 '어머니됨'에 주목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모성이 신여성에게 강요된 이데올로기라는 부분은 밝혀내고 있지만 '모성'이 어떤 구체적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초기 가정 교과목의 목표는 가정생활을 개량하는 것이었고(전미경, 2004b:8-9), 그 중 새로운 방식의 육아법은 생활개량의 핵심적 부분이었다. 가정생활의 개량을 통해 변화된 가정의 모습은 '신가정'의 수립이었다. 당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인 신가정, 즉 "행복과 사랑이 가득 찬 평화한 가정."⁷⁾ "행복스런 가당 재미있는 생활!!"⁸⁾

2)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가 인가한 가정교과서인 『한문가정학』(1910년)과 『신편가정학』(1910년)의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태교, 포육, 소아의 의식주, 소아교육, 소아의 질병 등에 관한 내용을 다수 실고 있으며(전미경, 2005), 1920-30년대 가사 교과서에서 '육아' 영역은 의식주 등과 함께 대단원으로 편제되어 전체 가사교과서의 33%~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전미경, 2004b).

3) 이광수, "모성중심의 여성교육", 『신여성』 3권 1호, pp.19-20.

4) 식민지 시기 '신여성'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여학생', '여학교를 졸업한 여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구여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5) 김혜경(2000)은 식민지 시기의 여성의 모성화를 '강요된 선택'이라 하고 있다.

6) 일제의 여성교육정책 및 현모양처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미경(2004a) 참조.

7) "살림은 어려우나 깨끗하기 그지없는 여가자 최의순씨 주방(전 휘문고보 敎諭 진장섭씨 가정)", 『신가정』 5권 9호(1931)

“취잇홈(sweet home)”⁹⁾ “문화가정”¹⁰⁾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직한 어머니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여성을 바람직한 어머니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했던 ‘모성 교육’은 가정교과서가 지향했던 새로운 가정 모습에 대한 세밀화를 가능하게 한다.

II. 이론적 배경 : 국가형성의 전략적 지점으로서의 여성의 어머니됨.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 2002:289-292)는 근대의 발명품인 국민국가는 ①영토의 경계선인 국경, ②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 국가주권, ③국민개념의 형성과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이데올로기, ④정치·경제·문화적 공간을 지배하는 국가장치, ⑤타국가와의 관계인 국제관계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상의 국민국가 충족조건 중에서 ‘가족’은 특히 국민통합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근대에 들어 가족의 변용은 근대 국가체제의 정비와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경과 국가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군인 등의 국민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로서의 통합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노동의 재생산을 보장하기에 국가에게 성(性)규범이 실천되고 내면화되는 가족의 관리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라고 믿고 있는 ‘가족’은 역사적으로 근대에 기원한 것으로 가족의 ‘자명성’은 근대라는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오카노 유키에, 1998:205). 가족이 민중관리의 거점이었던 것은 근대 일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메이지 유신은 국민국가형성을 선언하는 혁명이었고 메이지 정부는 호적법, 징병령, 민법, 세법 등의 정치·제도를 통해 가족을 매개로 한 민중의 장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다. 메이지의 민법가족제도가 상징하는 근대일본의 가족정책은 가족에서의 개인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염가의 노동력을 자본으로 제공함

으로써 가족이 일본 국가의 자본주의화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었던 점은 주지의 역사적 사실이다(따타 가즈에, 1996:80). 이러한 가족과 국가의 제도적 강화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것으로 메이지 4(1871)년에 제정된 ‘호적법’을 들 수 있다. 당시 호적법은 신분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민평등의 방침으로 행해졌기에 봉건적 신분계층제가 파괴된 ‘국민’이라는 관념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호적제도는 국가의 기초단위로서 가족이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악되어진 존재가 되었음을 말한다(코야마 시즈코, 2001:47-50).

한편, 여성의 어머니됨(모성) 역시 근대가족의 핵심적 특징으로 국민국가 형성의 중추적 원리로 작동하였다. 원래 ‘모성’이라는 단어는 사와야마 미카코(澤山美果子)에 의하면 엘렌 케이(Ellen Key)가 사용한 스웨덴어의 moderskap(영어의 motherhood 어머니로서 있는 것(모성됨), maternity 모성으로 되는 것, 어머니다움. 독일어의 muterlichkeit 어머니 됨, 어머니스러운 것, 어머니의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의 역어로서(마츠다 히데코, 1998:225-226), 일본의 경우에는 다이쇼(1912-1926) 중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쇼와기(1926-1989)에 정착한 단어이다(요시카와 토요코, 1998:257). 근대국가, 근대가족이 생성되면서 어머니로서 여성은 자녀생산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국민’으로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양처현모’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아내와 어머니라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지만,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어머니 역할이 아내 역할보다도 훨씬 중시되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와 달리 어머니가 되는 것을 통해 국가에 결부되어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자와 동등한 국민으로 보여 질 수 있었던 것이다(코야마 시즈코, 1990:65-66). 그런데 여성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성을 국가의 교육체제에 편입시키고 있었다. 근대교육이 법제화 되는 초기, 키도 다카요시(木戶孝允)의 ‘보통교육의 진흥에 대한 건백서안’(1868년 12월)은 국가의 부강은 인민의 부강에 있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적능력의 개발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의 설립이 급무라고 파악하

년 10월), pp.43-47.

8) 주은월, “스윗트, 홈 - 행복한 가정”, 『신여성』 2권 5호(1924년 7월), pp.25-27.

9) 나정월, “夫妻간의 문답”, 『신여성』 1권 2호(1923년 11월), p.70.

10) 조현경, “자녀차별철폐론”, 『신여성』 5권 11호(1931년 12월), p.14.

고 있었다. 결국 교육은 국가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조망되었다. 그러나 여성교육의 필요성은 남성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었다. 문부성은 여성은 장래 어머니가 되고, 그 어머니의 현명함과 현명치 못함이 아동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여성은 직접적으로 국가의 부강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다음 세대의 국민이 될 아동을 양육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메이지 이전 시기에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모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논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다(코야마 시즈코, 2001:54-59).

한편, 1920년대 중국에서도 모성의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쟁점으로 표면화 되었다. 모성에 대한 관심은 여성들이 가정을 떠나 방적공장 등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기계노동으로 인해 상실되어 가는 여성성을 보호, 특히 기혼여성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담론의 생산자는 대부분 남성 지식인들이었기에 여성적 시각이 부족하여 여성들에게 남성과 경쟁하여 여성다움을 상실하기 보다는 모성과 조화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조언하였다. 모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중국 남성지식인들의 모성인식은 1930년대 경제적 자립과 모성 보호의 측면에서 모성을 이야기한 여성의 목소리와 사뭇 다른 것이었다(천성림, 2003). 특히 1928년 북경을 점령하여 중국을 통일한 국민당과 南京國民政府는 여학생들에게 가사교과서의 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규율화, 합리화하고 양호하는 습관을 양성하도록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국가의 지도자와 국가권력에 복종하는 여성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미래의 어머니 양성은 자발적으로 남경정부에 복종하는 아동 즉 미래의 국민 양성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가사교과서는 여성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었다. 治家와 育兒는 여성의 천직이고 국가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강조하면서 여성이 이러한 천직을 완수하는 것과 남성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 직접적·간접적 공헌의 차이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지현숙, 2003:100-102).

이와 같이 현모양처의 관념이 하나의 사회적 사상으로

로 형성된 것은 일본과 조선, 그리고 중국에서 20세기 초의 개항기에 근대국가의 형성과 그 기반이 되는 국민의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여성을 국가로 통합시키는 과정에 서였다(가야모토 아야, 1998:2 재인용).

III. 연구방법

1.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담론분석의 방법으로 자료를 해석하고자 한다. 푸코는 담론(discourse, discours)을 '무엇인가를 주장하는[設] 기호들의 집합[言]'(푸코, 1993:a177)이라 정의 내린다. 담지자의 의식과 지향성이 수반되어 있는 담론을 분석하는 담론분석이란 다양한 의미사슬이 구성해 낸 자율적 발화구조가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서 혹은 기능적 분절로서 서서히 자신의 담론 구성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담론은 하나의 진술이 의식의 저장고에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시대감각에 맞는 것은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제하는, 말하자면 진술과 진술 사이의 교묘한 분절의 차이에 따라 정의 내려야만 한다(푸코, 1993b:25-29). 그러므로 담론 정의의 핵심은 담론의 사회적 측면인 것이다. 담론은 단순한 진술이나 언어적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며,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실천이다. 따라서 담론은 사회에서 수용되고 배제되는 틀을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을 통제한다. 새로운 담론의 발생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삶의 방식의 탄생을 의미하며, 그것은 기존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된다. 이렇게 사회에 대한 일련의 신념이 내재된 담론은 현실을 강력하게 규제한다.

담론 연구의 가장 큰 관심은 사회를 어떻게 변혁할 수 있는가에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한 시대의 주요 쟁점을 둘러싼 담론은 그러한 문제의 변화의 방향을 보여준다(조은 외, 1997:10). 그러므로 이 연구는 담론분석의 방법으로 분석 텍스트인 잡지 『신여성』에 실린 어머니, 아동, 육아, 임신과 출산 등 여성의 어머니됨과 관련되는 모성담론을 분석하여, 담론의 내용과 함께 그것의 논리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구명하려 한다.

〈표 1〉 분석 텍스트

번호	권 호	발행일	번호	권 호	발행일	번호	권 호	발행일	번호	권 호	발행일
1	1권 2호	23.11	17	3권 9호	25.09	33	5권 5호	31.06	49	6권 12호	32.12
2	2권 3호	24.03	18	3권 10호	25.10	34	5권 6호	31.07	50	7권 1호	33.01
3	2권 5호	24.05	19	3권 11호	25.12	35	5권 9호	31.10	51	7권 2호	33.02
4	2권 6호	24.06	20	4권 1호	26.01	36	5권 10호	31.11	52	7권 3호	33.03
5	2권 5호	24.07	21	4권 2호	26.02	37	5권 11호	31.12	53	7권 4호	33.04
6	2권 6호	24.09	22	4권 3호	26.04	38	6권 1호	32.01	54	7권 5호	33.05
7	2권 8호	24.10	23	4권 4호	26.04	39	6권 2호	32.02	55	7권 6호	33.06
8	2권 10호	24.11	24	4권 5호	26.05	40	6권 3호	32.03	56	7권 7호	33.07
9	2권 12호	24.12	25	4권 6호	26.06	41	6권 4호	32.04	57	7권 8호	33.08
10	3권 1호	25.01	26	4권 7호	26.07	42	6권 5호	32.05	58	7권 9호	33.09
11	3권 2호	25.02	27	4권 8호	26.08	43	6권 6호	32.06	59	7권 10호	33.10
12	3권 3호	25.03	28	4권 9호	26.09	44	6권 7호	32.07	60	7권 12호	33.12
13	3권 4호	25.04	29	4권 10호	26.10	45	6권 8호	32.08	61	8권 1호	34.01
14	3권 5호	25.05	30	5권 1호	31.01	46	6권 9호	32.09	62	8권 2호	34.03
15	3권 6호	25.07	31	5권 3호	31.04	47	6권 10호	32.10	63	8권 3호	34.04
16	3권 8호	25.08	32	5권 4호	31.05	48	6권 11호	32.11			

2. 분석 텍스트

이 연구의 목적은 『신여성』¹¹⁾에 실린 모성담론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다. 『신여성』은 당시 가장 많은 수의 잡지를 발간한 개벽사가 여성을 위해 발행한 여성종합잡지로서, 천도교의 핵심 멤버였던 방정환과 차상찬을 발행인으로 하여 1923년 9월에 창간되었다. 이때부터 1926년 11월까지 약 32권이 발행되었지만, 이후 발행이 중지되었다가 1931년 1월에 속간되어 1934년 8월까지 약 42권이 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영인본으로 묶여 있는 48권과 발행을 확인할 수 있었던 30권 중에서 대학 도서관 등에서 입수한 15권의 원본을 합쳐 총 63권을 분석하였다.

3.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신여성』에 나타난 모성 관련 담론을 분석하여, 당시 바람직한 어머니 노릇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으며, 그러한 어머니 노릇이 당위적인 규범으로 자

리매김 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담론의 내부적 구조로서 어머니 노릇의 구체적 측면과 함께 담론의 외부적 구조로서 모성담론의 논리적 토대가 되는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연구 문제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성담론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또 담론의 주 집필진은 누구인가?

둘째, 모성담론은 어떤 논리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가?

셋째, 식민지 시기 모성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IV. 연구결과

1. 모성담론의 내부적 구조

1) 『신여성』 모성담론의 내용

『신여성』의 편집진은 이 잡지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성교육을 위한 또 다른 교과서이고자 하였다. 여기서 발견되는 모성담론 즉 새로운 어머니됨과 구체적인 어머니 노릇 등을 말하는 담론은 약 100여편이 있는데,

11) 식민지 시기 잡지 『신여성』의 발행배경 및 그 의미에 관한 논의는 전미경(2004a) pp.77-79. 참조.

〈표 2〉 「신여성」 모성관련기사 내용별 분류

주제	저자	제목	출처	비고
모성 관련	이광수	모성중심의 여성교육	3권 1호(1925년 1월), pp.19-20.	
	苦笑生	현모양처주의의 교육시비: 一書簡	3권 3호(1925.3), pp.9-13	현모양처주의 비난 담론
	이은상	조선의 여성은 조선의 모성	3권 6호(1925년 7월), pp.2-6	
	SKY 譯	미래의 여성이 되라	3권 11호(1925년 11월), pp.8-13	
	.	귀여운 어머니의 사랑	4권 7호(1926년 7월), p.61.	자녀를 구하고 사망한 어머니 이야기
	김파	조선여성의 향할 길(10): 특히 신여성들에게 말하여 일꾼녀자가 되기를 바란다	4권 9호(1926년 9월), pp.10-14.	
	윤각경	어린 어머니가 될가?!	5권 5호(1931년 5월), pp.63-65.	
	주요섭	여자교육개선안	5권 5호(1931년 6월), pp.8-12.	
	.	신시대의 어머니를 차차서: 임봉순씨부인 황신태씨	6권 1호(1932년 1월), pp.46-48.	
	권금년	어린이를 위하여	6권 2호(1932년 2월), p.21	
	원종현	어머니회를 짜서!	6권 2호(1932년 2월), p.24.	
	이정호	어머니날 이야기	6권 5호(1932년 5월), p.1.	
	.	위인의 어머니	6권 5호(1932년 5월), pp.59-60.	나폴레옹 어머니 이야기
	사우춘	어머니의 공포	6권 11호(1932년 11월), pp.17-19.	
	최의순 외	그리운 옛 추억: 거룩한 어머니의 사랑	6권 11호(1932년 11월), p.37.	유명인사들의 어머니 추억기
	김자혜	직업여성과 가정	7권 4호(1933년 4월), pp.34-36.	직업을 가진 여성의 어머니됨 논의.
	박팔양	젊은 어머니에게	7권 6호(1933년 6월), p.85.	
	최영주	귀여운 아가를 위하여: 젊은 어머니에게	7권 6호(1933년 6월), p.90.	
	최영주	아가를 위하여: 어머니에게 보내는 글	7권 7호(1933년 7월), p.133.	
	주요섭	조선여자교육개선안	7권 10호(1933년 10월), pp.12-17.	
여운형 외	우리 어머니 이동어록	7권 12호(1933년 12월), pp.34-43.	유명 인사들의 어머니 추억기	
이명숙	젊은 엄마의 영춘사(迎春詞)	8권 1호(1934년 1월), pp.54-57.	어머니됨에 대한 수기	
허영숙	눈물의 수기: 아들 봉근이를 일코	8권 3호(1934년 4월), pp.138-140.	자녀 사고사 이후의 수기담	
아동 관련	소파	어린이 찬미	2권 6호(1924년 6월), pp.66-71.	
	백합	부인에게 긴급한 문제, 유치원과 그 선생	3권 5호(1925년 5월), pp.26-29.	
	.	愛兒命名錄	5권 3호(1931년 3월), pp.54-55.	자녀 작명(作名)
	조현경	여차별질페론	5권 11호(1931년 12월), p.14.	
	권금년	어린이를 위하여	6권 2호(1932년 2월), pp.21-22.	
	이정호	아동문제강화 어린이날 이야기(4)	6권 5호(1932년 5월), pp.64-70.	
	최순	양친재교육과 보육이론에 관한 몇가지 소견	6권 8호(1932년 8월), pp.10-15.	

	윤석중	동심잡기	7권 7호(1933년 7월), pp.22-25.	
	낙량자	이상의 어린이와 현실의 어린이	7권 10호(1933년 10월), pp.92-95.	
	윤석중	동심잡기	8권 1호(1934년 1월), p.42.	
	유소제	아이들과 작란	8권 3호(1934년 4월), p.85.	
우생학	김명희	시평: 산아제한시비문제	3권 1호(1925년 1월), pp.10-11.	
	박순옥	신여성평단: 출산 모라터리엄	5권 11호(1931년 12월), p.47.	
	유상규	조선여성과 산아제한	6권 3호(1932년 3월), pp.8-11.	
	유상규	산아제한시비 우생학상으로 본 산아제한: 조선여성과 산아제한의 계승	6권 4호(1932년 4월), pp.14-16.	
	이갑수	우생학적 산아제한론	7권 8호(1933년 8월), pp.76-79.	
아동문예 및 교육	박달성	입학연령 자녀를 둔 가정에	2권 3호(1924년 3월), pp.14-17.	
	.	갓난 아기 재우는 법	2권 3호(1924년 3월), p.72.	
	남한산인	가정교육과 아동의 관계	3권 11호(1925년 11월), pp.47-53.	
	.	가정에서 읽을것: 녀름의 음료	4권 7호(1926년 7월), pp.41-43.	
	백과생	우유의 보는 법 사는 법	4권 9호(1926년 9월), pp.52-53.	
	이찬실	어린이를 꾸지스릴 때에	4권 10호(1926년 10월), pp.25-26.	
	조현경	자녀차별철폐	5권 11호(1931년 12월), pp.19-21.	
	이선근	실익기사: 어린아기 기르는 법	6권 1호(1932년 1월), pp.84-91.	
	이선근	실익기사: 어린아기 기르는 법 (2)	6권 2호(1932년 2월), pp.72-76.	
	이정호	아기에게 들려줄 이야기(1)	6권 2호(1932년 2월), pp.78-83.	
	이정호	아동문제강좌(4): 입학시험과 어머니의 주의	6권 3호(1932년 3월), pp.60-63.	
	이선근	실익기사: 어린 아기 기르는 법(3)	6권 3호(1932년 3월), pp.71-75.	
	이정호	아동문제강좌(3) 아동과 언어문제	6권 4호(1932년 4월), pp.58-61.	
	이정호	아동문제강좌(4) 아동과 언어문제	6권 5호(1932년 5월), pp.64-70.	
	이선근	요체에 조심할 어린애기 섭생법	6권 5호(1932년 5월), pp.71-73.	
	이정호	아동문제강좌(5) 갓난애기 재우는 법	6권 6호(1932년 6월), pp.64-65.	
	이정호	아동문제강좌(6) 아동과 점심	6권 7호(1932년 7월), pp.63-65.	
	이정호	아동문제강좌(7) 아동의 심리연구	6권 8호(1932년 8월), pp.55-57.	
	.	夏休中兒童教育法十條	6권 8호(1932년 8월), p.91.	
	이정호	아동문제강좌(7의 속) 아동의 심리연구	6권 9호(1932년 9월), pp.60-63.	
	.	특집기사: 육아문제아동좌담회	6권 10호(1932년 10월), pp.24-33.	
	이정호	아동문제강좌(8): 아동과 신문에 대하여	6권 10호(1932년 10월), pp.61-63.	
	이정호	아동문제강좌(9) : 아동과 의복	6권 11호(1932년 11월), pp.63-68.	
	K생	직업부인과 육아	7권 4호(1933년 4월), pp.50-51.	직업부인의 아동양육

		일학년생 어머니에게	7권 6호(1933년 6월), p.86.	
	이금전	모유와 유아	7권 6호(1933년 6월), pp.86-87.	
		육아상식	7권 10호(1933년 10월), p.110.	
		체질과 영양 섭취법: 반드시 아라들 어머니 지식	8권 1호(1934년 1월), pp.96-99.	
	RSH	조흔 자녀를 기릅시다.	8권 1호(1934년 4월), pp.104-106.	
아동질병 및 간호	이선근	아동과 위생 소학교 아동의 보건문제: 특히 부모와 보호자에게	6권 4호(1932년 4월), pp.72-75.	
	이선근	요때 가장 만흔 아동의 소화불량증: 그 증세와 간호법	6권 6호(1931년 6월), pp.70-71.	
	이선근	여름철에 만흔 소아의 피부증: 그의 간호예방은 어찌케할가?	6권 7호(1931년 7월), pp.60-62.	
	이선근	어린이들의 질병을 속히 발견하는 법	6권 8호(1932년 8월), pp.58-63.	
	이선근	誌上顧問: 소아과 진찰실	6권 9호(1931년 9월), pp.52-55.	
	이선근	아동과 위생: 아동의 기생충문제	6권 9호(1931년 9월), pp.66-68.	
	이선근	아동과 위생: 아기와 기생충 문제	6권 10호(1932년 10월), pp.58-60.	
	이선근	아동과 위생: 백일해 이야기	6권 11호(1932년 11월), pp.78-80.	
임신과 출산	윤태권	실익기사: 태아로 출산까지	6권 1호(1931년 1월), pp.74-80.	
	윤태권	실익기사: 태아로 출산까지(2)	6권 2호(1931년 2월), pp.68-71.	
	윤태권	실익기사: 포태로 출산까지	6권 3호(1932년 3월), pp.76-79.	
	윤태권	임부독본: 수태와 태아의 교육	6권 4호(1931년 4월), pp.69-71.	
	윤태권	임부독본: 포태와 모체의 변화	6권 5호(1931년 5월), pp.74-75.	
	윤태권	임부독본: 임신중의 섭생법	6권 6호(1931년 6월), pp.66-68.	
	윤태권	임부독본: 임신시의 惡阻症과 浮症	6권 7호(1931년 7월), pp.58-59.	
	윤태권	임부독본: 임신의 이상과 섭생법	6권 8호(1932년 8월), pp.64-65.	
	윤태권	임부독본(속): 임신의 이상과 섭생법	6권 9호(1931년 9월), pp.64-65.	
	윤태권	병원야화: 에벤 부인의 배가르든 이야기	6권 9호(1932년 9월), pp.88-89.	
	윤태권	산부독본: 아기 나오는 절차	6권 10호(1932년 10월), pp.66-68.	
	윤태권	안산 교과서: 난산과 산부	6권 11호(1932년 11월), p.73.	
	윤태권	산부독본: 정규분만	6권 12호(1932년 12월), pp.94-95.	
	윤태권	産院開設: 해산과 미신	7권 2호(1933년 2월), pp.92-93.	
			四胎兒를 출산한 돈암리 김음전씨 방문기	7권 7호(1933년 7월), pp.113-115.
	김석환	다태생산의 원인	7권 7호(1933년 7월), pp.116-117.	

크게 6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¹²⁾

12) 이 연구에서 모성담론의 분석을 위해 채택된 담론에는 아동

관련 담론도 포함하였다. 근대적 모성과 아동은 서로 함께 해야 하는 공존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는 동요, 동

- ① 여성의 어머니됨: 苦笑生처럼 현모양처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이는 소수의 목소리이며, 대부분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본분과 함께 이것에 초점 맞춘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말한다. 바람직한 어머니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위인들의 어머니 추억담이 소개되면서 모성이 아동의 발달과 국가의 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② 아동관: '아해'는 '어린이'로 탄생되고 있었다. "아가는 어머니에게 다시 업는 보물입니다. 귀엽고 귀엽고 귀여워 죽게시리 귀여운 것은 아가울시다"¹³⁾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린이는 천진난만한 '천사'의 이미지로 그려지면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어린이의 인권이 주장되었다.¹⁴⁾
- ③ 우생학: 서구와 일본에서 유입된 우생학적 사상의 소개와 함께 이 우생학이 조선에서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를 말한다.
- ④ 아동양육 및 교육: 전체 모성담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의 구체적 지침이 소개되고 있다.
- ⑤ 아동질병 및 간호: '위생'의 영역이 아동양육에 접목되어 발화되는 지점이 아동의 '질병'이라 할 수 있다. 담론은 어머니의 비위생적 양육이 자녀의 질병을 야기한다고 하면서 혼란 아동의 질병과 함께 간호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⑥ 임신과 출산: 임신의 과정 및 아동의 태내발달, 그리고 출산의 과정 등을 말하면서, 임신부의 주의 사항을 세심하게 전하고 있다.

한편, 동시대에 발행되었던 1930년대 가사교과서를 살펴보면, '육아' 영역은 전체 가사교과서의 30-40%를 차지하는 중요한 단원이었다. 이 단원은 ① 모성의 의의를 말하는 '모성'됨의 영역, ②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의 태내 발달 및 모체의 변화를 기술한 임신과 출산 영역, ③ 건

화, 시, 소설, 광고 등은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13) 최영주, "귀여운 아가를 위하여 -젊은 어머니에게", 『신여성』 7권 6호(1933년 6월), p.90.

14) 『신여성』에 새로운 아동관을 주장하는 담론이 비교적 적은 것은 동시에 발간되었던 잡지 『어린이』에 집중적으로 실렸기 때문이다.

강한 아동의 지표를 설명하는 아동발달 영역, ④ 선생아와 유아를 돌보는 구체적 육아법과 소아의 질병, 그리고 취학 등을 설명한 보육의 영역으로 나뉜다.¹⁵⁾ 이와 같은 가사교과서의 육아 단원은 『신여성』에 나타난 모성담론과 상당히 중첩됨을 알 수 있다.

2) 『신여성』 모성담론 집필진

필명을 사용한 필진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성담론은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었다. 집필진 중에는 이광수, 이은상, 주요섭과 같은 문인도 있지만 가장 많은 글을 게재한 이는 이정호, 이선근, 윤태권이다. 우선 이정호는 1920-30년대 '소년운동'을 주도한 천도교 소년회의 핵심적 인물로서, 방정환, 김기전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였다. 특히 『신여성』지에 젊은 어머니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어머니란'을 만들어 동화, 아동심리, 신문, 의복 등에 관한 글을 집필하였다. 또 아동의 양육과 교육, 아동의 질병과 그 간호, 임신과 출산에 관한 글은 거의 대부분 이선근과 윤태권에 의해 집필되었다. 이선근과 윤태권은 각각 성대소아과와 성대산부인과 의사로서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임신과 출산, 아동양육에 관한 지식을 소개하였다.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가정생활은 생활개량운동의 중요한 지표였기에,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힘입어 이들 전문가 집단은 질병과 간호, 아동 양육에 관한 구체적 방향을 세밀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전통시대의 육아방법과 달리 당시의 모성담론은 위생과 질병의 논의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조형근(1997)은 의료체계의 규범적·제도적 기능 및 식민지시기 의료체계의 변화를 개괄하면서 어머니의 위생적 양육이 가정의 규율화를 완성하는 주된 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의료체계의 변화 및 '몸'에 대한 근대적인 인식들의 태동¹⁶⁾은 '과학화', '규율화', '표준화'된 어머니 노릇을 만들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20-30년대 조선 사회 곳곳에서 발화되었던 '개량론'에서 결코 부수적인 위치로 둘러버릴 수 없는 집단이 바로 근대 지식을 획득하고 '민족의 개

15)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전미경(2004b), pp.18-19 참조.

1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윤성(1994), 이승원(2000) 참조.

량'이란 사명 아래 과학적 지식의 전파를 위해 노력했던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experts)'이었다. 어머니는 전문가의 지도에 의한 과학적 육아법을 따를 것이 권고되었다(김혜경, 2000:85).

2 모성담론의 외부적 구조

이제 바람직한 어머니 노릇 즉 육아방식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것이 어떤 논리적 토대 위에서 말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모성담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담론의 외부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여성교육의 필요성

개화기의 남녀동등이란 새로운 잣대는 당위적 규범이었던 '女子有行'에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존재이자 국민의 한 분자로서의 '여성'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는데, 그것의 당위는 여성의 어머니됨에 있었다. 어머니인 여성은 장차 국민이 될 자녀가 학교교육을 받기 전, 가정에서 그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어느덧 "어편네의 직무는 세상에 나서 사나이를 가르치라는 것"¹⁷⁾이 되었던 것이다.

"여성들이여, 새 국민을 나하주소서!"의 논조는 식민지 시기에도 계속 된다. 나쁜 어머니는 나쁜 아이를 만들고, 좋은 어머니는 좋은 아이를 만들기에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은 '녀자의 인류에 대한 의무요 국가에 대한 의무요 사회에 대한 의무요 또 녀자가 아니고는 하지 못할 것'이 되었다.¹⁸⁾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행 학습으로서의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정교육의 담당자로서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어머니를 만들기 위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은 어머니에게 "우리의 자녀를 충실하게 교양하여 고상한 이상을 가진 不絶不屈히 용진하는 인물을 만들"¹⁹⁾것을 요구하였다. "제이국민을 양성할 여

자, 조선의 생명을 이어줄 여자"는 어머니로서 "부끄럽히 날뛰여야" 했다.²⁰⁾

2) 여성에 대한 성과학의 규정

식민지 시기 '과학'이 어떠한 개념인가를 정의 하기란 쉽지 않지만, 과학은 선진한 문물, 문명의 이기와 함께 배치되었다. 과학은 암흑과 같은 야만적 생활을 밝히는 등불이었으며,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다주는 유용한 도구였다. 생활개량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 적극적으로 수입된 과학은 '이론', 전문가들의 '연구', 검증된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이 본질적으로 '어머니'임을 증명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과 남성의 성차를 설명하는 성과학이었다.

동물의 암컷은 새끼를 생산하고 또 길은 책임과 부담이 잇슴으로 자기호쁨으로 자유로 활동할 수 잇는 남성에 비교하여 항상 弱자의 지위에 잇게 된다. 그런고로 남성과 가티 덕과 정면충돌을 하거나 또는 공격하는 일을 피하고 녀성은 스스로 피하고 숨어가면서 방어하는 태도를 갖는지라 덕의 눈에 쓰이지 안토록 색기를 안고 피하여 숨어 잇을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²¹⁾

여성에 대한 성과학적 설명에 따르면, 여성은 인간이 되기 전에 '암컷'이고, 암컷인 여성은 태생적으로 공격적인 남성과는 그 '본능'과 '천성'이 방어적이다. 이러한 특성의 결과로 '녀자는 항상 남자의 눈치를 채이고 남자의 노역을 사지 안토록 비위를 맞춰가면서 전전공공하면서 살'을 수밖에 없었고, 남자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큰 길을 활보도 못하는 등의 행동이 '녀자의 미덕'이 되어 왔다. 여성적 특성인 '침묵', '표리부동', '外面修飾'이 여성의 호신술이 된 '비밀'을 설명해 주는 '동물학자'와 '스펜-사'의

17) 독립신문, 1898년 1월 4일.

18) 이광수, "모성중심의 여자교육", 『신여성』 3권 1호(1925년 1월), pp.19-20.

19) 윤각경, "어떤 어머니가 될가!?", 『신여성』 5권 5호(1931년 5월), pp.63-65.

20) 김파, "조선여성의 향할 길(10): 특히 신여성들에게 말하여 일꾼녀자가 되기를 바란다", 『신여성』 4권 9호(1926년 9월), pp.10-14.

21) 김영덕, "젊은 여자의 비밀", 『신여성』 2권 8호(1924년 10월) p.27.

설명은 어떤 효과를 낳고 있었을까? 남성은 여성과 본질적으로 다른 대립적 존재가 되어 남성이 공격적이고 능동적이며 독립적 존재라면 여성은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성과 과학은 이 차이를 자연적이며 본질적인 특성으로 설명한다. '사회적 경우'가 남성의 자연이라면, 모성은 여성의 "순진한 자연스러운 인생"이다. "성향이 모성될 조건 하에 있는 여성자체의 필연한 결과"로 여성은 어머니여야 했다.²²⁾

3) 여성의 어머니됨과 의학

의학은 그 특유의 면밀함과 투명함으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었다. 의학은 종래의 수태를 '남자의 생식세포와 여자의 생식세포가 결합되어 특유한 세포가 성립되는 것' 즉 '수정'이라고 하면서, 임신과 태내기의 아동발달을, '정자, 난자, 3억의 감자세포, 나팔관, 배란작용, 난소, 착상, 유전, 상수도, 하수도, 태반, 임란, 치골봉제, 삼황지상, 이지황경하부, 포유운동, 九六%의 두위, 골반단위, 와위, 횡위' 등의 낯선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²³⁾ 또한 의학은 출산의 과정을 紙面에서 증계하였으며²⁴⁾ 임신한 모체의 생식기, 유행, 피부의 변화를 세세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²⁵⁾ 무엇보다 임신한 모체가 겪어야 하는 고단함을 '질병'으로 전환시켜 설명하였다.

(악조증(입덧:필자)은) 임신초기부터 시작되어 임신 四, 五개월까지 계속되며 처음에는 두통과 현기가 잇고 숨이 막아지며 대개는 대변이 구더집니다. 그리하여 아츰 일즉히 이와 가튼 증세가 심하여 혈색이 엷서지며 음식물은 조금도 먹지 안코 숯(炭), 흙(土) 가튼 것을 먹게 되며 一日에 二三十회식 토하게 되며 목이 마르며 혀

(舌)가 타서 검게 되며 입에 내음새가 생기며 신열이 나서 헤쇼소리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생명까지 이르게 됩니다.²⁶⁾

생명까지 잃게 하는 병, '惡阻症'과 '전신이 붓고 동풍이 되어 정신을 잃는 병'인 '자간' 등은 신기하게도 출산과 동시에 저절로 사라지는 병이다. '임신 중에만 쏙 오는 부증'은 잘못하면 '보행하기 곤란'함은 물론 '심하면 의음부에 살이 백겨져서 그로 인하여 살이 썩는 일'까지 있게 된다.²⁷⁾ 이 무서운 질병을 기꺼이 감내하려는 어머니는 과연 위대한 존재였다.

難産은 단순한 난산이 아니라 '진통미약', '경련진통', '軟部産道の 이상', '협착골반', '태아 이상', '臍帶 이상', '난막 이상', '태반 이상'으로 나뉜다. "태아에 머리에다가 구멍을 쏘어서 잡아내"야 하는 난산은 태아와 어머니의 "생명까지 잃는" 위험한 작업이었다.²⁸⁾ 태아가 건강하게 출산하였다는 사실은 '모체의 급성열병, 폐결핵, 매독, 심장병, 신장병, 악조증, 자궁외 임신' 등의 위험을 무사히 통과하였음을 의미하며, '금일의 의학으로는 百%는 치료치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요법을 비롯하여 '이상분만', '태반조기별리', '자궁주위염', '골반' '결체직염', '광범성 복막염', '귀혈정'의 난관을 극복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²⁹⁾ 이렇게 의학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수많은 질병 속에 배치하였다.

한편, 임신과 출산에서의 위험적 징후가 포착될수록 예방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 산모는 '음식물은 되도록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섭취하되, '술, 차, 커피, 후초, 겨자' 등의 자극적 음식은 피해야 함은³⁰⁾ 물론, "시의 등지에 산보를 하여 신선한 공기를 쏘이게 하며 또한 적당하게 운동"을 하여야 한다. 여행은 삼가는

22) 안재홍, "자연스러운 인생을 짓도록", 『신여성』 3권 1호(1935년 1월), pp.22-23.

23) 윤태권, "임신독본, 수태와 태아의 발육", 『신여성』 6권 4호(1932년 4월), pp.69-71.

24) 윤태권, "産婦讀本, 아기가 나오는 절차", 『신여성』 6권 10호(1932년 10월), pp.66-68.

25) 윤태권, "임신독본, 포태와 모체의 변화", 『신여성』 6권 5호(1932년 5월), pp.74-75.

26) 윤태권, "임신독본, 임신시의 惡阻症과 浮腫", 『신여성』 6권 7호(1932년 7월), pp.58-59.

27) 윤태권, "임신독본, 임신의 이상과 섭생법", 『신여성』, 6권 9호(1932년 9월), pp.64-65.

28) 윤태권, "안산(安産) 교과서", 『신여성』 6권 11호(1932년 11월), pp.70-72.

29) 윤태권, "실의기사, 포태로 출산까지(2)", 『신여성』 6권 2호(1932년 2월), pp.68-71.

30) 앞의 글

것이 좋으며, 유방을 정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다산으로 배에 힘이 없는 임신부는 “배찌(복대)”를 착용해야 한다.³¹⁾ 여성의 생식현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디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 ‘상식’은 “적게 보면 개인의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사회적 문화적 관련이 있어서 한 큰 중대한 각 개인의 임무”여야 했기에 여성의 몸은 ‘란소, 라팔관, 자궁, 질, 외음부-음문, 음모, 젖(乳房)’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낯낯이 해부되고 있었다.³²⁾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이렇게 어려운 과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힘든 과업을 무사히 통과하여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는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귀중한 존재였던 것이다.

통계적 지표, 실험 등을 통해 가시적 영역으로 편입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앎’은 출산의 기쁨을 배가시키면서 모성을 더욱 거룩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으나, 이 거룩한 기쁨의 발원지에는 수많은 위험과 질병이 내재된 임신과 출산이 있었다.

이와 같이 교육, 성과학, 의학과 같은 근대적·과학적 지식은 ‘여성=암컷=어머니’란 연결고리를 더욱 강력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적극적으로 수입된 지식에 의해 여성이 ‘모성’을 넘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계속되었고 이러한 설명은 여성의 ‘어머니됨’을 공고히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제였다. 특히 이러한 지식이 ‘사실’을 너머 ‘진리’가 되기 시작한 시대였기에 여성은 과학이 설명해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3. 식민지 시기 모성담론의 특징

식민지 시기 과학의 힘은 어른과 다른 아동의 심리를 발견하였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지식’은 어머니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상식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아동양육에 관한 내용이 『신여성』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지식’

으로 소개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冬期에 만흔 소아 폐렴간호법’³³⁾과 ‘腺病質 아동’, ‘공부하는 학생들’의 영양학적 섭생법³⁴⁾은 “반드시 아라들 어머니 지식”이었다. 『신여성』의 편집진들은 자신들의 잡지에 실익기사가 많다는 내용을 편집후기³⁵⁾나, 社告³⁶⁾를 통해 널리 알리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기사를 많이 신고자 하였다. 이것은 『신여성』의 주된 사명이 ‘계몽성’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여성』에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설명되는 아동심리, 아동양육법에 관한 내용이 증대되었음은 물론 이러한 내용은 실익기사로 정착되고 있었다.

『신여성』에는 실익기사로써의 양육법에 이어, 아동양육에 관한 고정란을 개설하였다. 그 시작은 방정환과 함께 어린이 운동에 앞장섰던 이정호에 의해서 출발되었다. 이정호는 『신여성』 6권 2호(1932년 2월)에 자녀의 보육 문제·교육문제, 기타 어머니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과 지식을 기술하여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으로 ‘어머니의 欄’을 만들었다.³⁷⁾

이와 같이 신여성은 구여성과 차별화된 새로운 양육 방식을 습득해야 했기에, 의사, 교수, 박사 등의 전문가들은 신여성에게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특히 『신여성』이 속간된 이후에는 양육과 관련된 기사가 대폭 증대되었다.³⁸⁾ 과학적 육아법은 가정만이 거의 유일한 활동 공간이었던 대다수의 교육받은 식민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연맹을 맺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권력이었다(김혜경, 2000:91). 이제 새로운 ‘어머니 노릇’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31) 윤택권, “임신독본, 임신중의 섭생법”, 『신여성』 6권 6호(1932년 6월), pp.66-68.

32) 허신, “생리강화, 성의 신비”, 『신여성』 7권 9호(1933년 9월), pp.152-156. / 허신, “여성생리강화, 성의 신비성(完)”, 『신여성』 7권 10호(1933년 10월), pp.116-117.

33) 편집국, “반드시 아라들 주부의 지식: 冬期에 만흔 소아폐렴간호법” 『신여성』 5권 11호(1931년 12월), p.76.

34) “체질과 영양섭취법: 반드시 아라들 어머니 지식”, 『신여성』 8권 1호(1934년 1월), pp.96-99.

35) “편집을 맞치고”, 『신여성』 4권 9호(1926년 9월), p.100.

36) 『신여성』 4권 10호(1926년 10월), p.24. / 『신여성』 5권 11-12월호(1931년 12월), p.37.

37) 이러한 그의 의도는 다음해 7권 6호(1933년 6월)에 이르러서는 『신여성』 차원의 기획으로 확대된다.

38) 특히 1932년에 발간된 『신여성』은 지속적으로 대략 36편의 아동양육, 임신과 출산 등에 관한 글을 신고 있었다. 32년에 『신여성』이 12회 발간되었음을 볼 때 평균 3편의 글이 실렸음을 알 수 있다.

① 어머니 노릇의 그 잡다함!

신여성의 어머니됨을 말하는 양육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올바른 '어머니 노릇'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신시대 어머니의 독본'이라는 부제가 달린 한 좌담회에 참석한 '名士婦人'들은 이 좌담회에서 육아문제를 다루는 이유를 다른 나라보다 모든 방면에 뒤져 있는 조선의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그 올바른 양육을 위하여 어머니는 어린 아기의 이유시기, 영양, 수면, 체온, 언어, 심리, 장난감, 의복, 동무사귀기에 대하여 알아야 했다. 어머니는 세 시간 반에 한 번씩 먹이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나가는 '시간것'의 유용함을 알아야 했으며, 젖을 빨리 댄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수하다는 통계치가 말하고 있듯이 시기적절한 이유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했다. 또 우유, 양배추 삶은 물, 계란, 반죽한 죽 등이 離乳로 적당한 까닭은 값싸지만 '영양-즉 단백질, 지방, 물(水) 含水炭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어머니 노릇'이었다. 어머니는 사과, 비스킷, 어간유 같은 간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이유도 경청해야 했는데, 음식 하나에도 '신진대사' 등 영양의 공급 차원에서 줄 것인지, '아이들의 선호'를 인정하면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율 있는 수면습관과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체중을 재어보는 것의 중요함, 시시 때때로 체온을 재보는 것의 유용함, 거짓말 하는 아이의 심리의 이해, 장난감의 선택(붉은색, 검은색 같은 자극성이 많은 장난감은 그 자극성으로 아기의 시력이 잃게 되는 수가 많으므로 자극성이 없는 녹색, 백색, 옅은 청색의 장난감이 좋음),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위생적인 의복 선택 등은 어머니의 유익한 정보로 제공되었다.³⁹⁾

이처럼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먹거리와 관계되어 영양학적 지식과 조리법을 알아야 했으며, 아동 의복과 관련하여 피복학적 지식이 있어야 했다. 아동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 아동교육과 관련된 교육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광범위하고 잡다한 지식 속에서 신여성의

39) 명사부인 편, "특집기사, 육아문제 이등좌담회", 『신여성』 6권 10호(1932년 10월), pp.24-33.

어머니 노릇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었을까?

② 양육, '감찰'에서부터 시작하다.

우선 신여성의 어머니 되기는 자녀에 대한 '감시'와 '관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어머님 되신 분은 항상 어린이의 육체나 정신 두 방면을 간단엽시 관찰해야 혹시 어떠한 이상이 있거나 안은가 하는 것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주의가 조밀하신 어머님은 아해들의 병을 속히 발견하여 적당한 처치를 행하는 까닭으로 그 다지 중태에 빠지는 일이 업시 용이히 날수가 있스나 이와 반대로 어린이들의게 대하여 무관심한 어머님은 병이 중하게 된 후에야 서둘기 시작하는 고로 의외의 화를 당하는 일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 되신 분은 적어도 어린이들의 건강상태와 병이 생겼을 때의 증세 씬은 알아볼만한 의학상 지식과 소양을 다기두서야 할 것이니...⁴⁰⁾

어머니는 자녀의 '자세로 보아서' 정상발달, 녹막염, 기생충, 천식, 뇌막염 같은 질병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눈으로 보아서' 근시, 사팔눈, 루낭염, 결막염, 야맹증 여부를 알아야 하며, 피부로 보아서 '빈혈, 결핵, 전천매독, 위장병, 기생충'을 의심해야 한다. '귀로 보아서' 귀가 고장이 나지나 않았는지, '코로 보아서' 감기가 아닌지, '입으로 보아서' 인후에 있는 병의 유무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주의 사항은 숨구녕(大息門), 울음소리, 음성, 경련, 수면, 체온, 체중, 호흡, 식욕, 대변, 소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녀의 몸이 말하는 단서를 읽기 위해서는 끝없이 '관찰'하고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이처럼 양육의 시작은 '감찰'이었다.

③ 양육,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

"적어도 너희학교 출신으로 처음 어머니가 된 사람 또는 미구에 될 사람이 반듯이 알아두어야 할 주의건"⁴¹⁾인

40) 이선근, "어린이들의 질병을 속히 발견하는 법", 『신여성』 6권 8호(1932년 8월), pp.58-63.

41) 이정호, "아동문제講話(5) 잔난애기 재우는 법", 『신여성』 6권 6호(1932년 6월), pp.64-65.

육아상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양육’에 내재된 위험성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신여성이라면 아이를 재우는 것 같은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는 것은 금물이었다. 왜냐하면 재래의 조선 어머니들이 갓난아기 “뉘우기를 잘못하여 머리 형상이 뒤틀러 병신”이 된 이가 많으며 심지어 “발짓, 팔짓, 거름거리까지 반신불수갓치 맨든 이”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갓난아기를 재우는 올바른 방법이란 “뱃 안드는 곳에 편편하게 받듯이 쌀아노흔 포다가 우에 납작한 벼개를 편편하게 눕트 바른(우편)편으로 기우둑하게 엽호로 누이는 것”이다. 갓난아기를 재우는 것은 아기의 몸의 발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신여성은 “리상덕으로 아기를 잘 재우는” 방법을 습득해야 했다.⁴²⁾ 조용하고 편편한 자리에 누었는데도 아기가 몸을 뒤척이는 것은 “반듯이 신경이 아주 편히 쉬이지 못하고 무엇에 자극을 받는 것”이니 “그럴 때마다 곱게 곱게 그의 신경을 자극하지 안토록 주의하면서 자리를 옮겨 주든지”하면 “귀여운 애기는 다시 술술 잠이 든다.”⁴³⁾

이처럼 의학담론은 어머니 노릇의 실수가 자녀에게 미치는 엄청난 결과를 예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노릇에는 자녀의 행동 하나 하나가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하여 긴장감 있는 주의집중이 요구되었다. 여름철은 “어린이들의게는 가장 신체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기 쉬운 시기”니, 땀띠, 소화기, 음료수를 조심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자외선의 자극으로 인하여 생”기는 눈병에 주의하여야 했다.⁴⁴⁾ 쉽게 넘길 수 있는 아이의 ‘소화불량증’이라도 증할 때에는 “여러 가지 모든 병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처럼 생각이 되어 그 증세가 천태망상의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 여름철에 “돌이 갓까운” 어린이가 소화불량증에 걸리게 되면 “반수 이상이 다시 도라오지 못할 멀고 먼 세상으로 살아지고 마는 참말 소름이 쫓칠만치 무서운 병”인 것이다.⁴⁵⁾

잠자는 것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변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체열이라든지 혈색이라든지 특히 여자면 월경시의 이상까지라도 아조 세밀하게 주의를 해서 평소와 비교하여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이상이든지 발견하면 즉각으로 그 원인을 캐여서 곳쳐주어야 할 것이요 … 어머니는 여기에서 간호부가 하는 정도의 위생 지식이나 괴능 썸은 가져야 어린사람 생리에 잇서 민감이 생겨질 것입니다.⁴⁶⁾

좋은 어머니는 아동이 잘 걸리는 질병인 ‘백일해’의 발병 원인과 그 간호법⁴⁷⁾ 물론이고 심이지장충, 조충, 요충의 생태와 이 ‘버레’에 습격 받은 아이의 징후 및 그 구제방법을 알고 있어야 했다.⁴⁸⁾ 맹장염 증세로 온 8세 아이를 수술했더니 “배에 구멍을 찌르고 회충을 집어낸 것이 구십여마리”이고 약으로 나온 것이 이십여마리로 “좌우간 백마리 이상이나” 배 속에 있었다⁴⁹⁾고 하는 전문가들의 임상경험에서 어머니의 무지의 결과는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다. 아이의 질병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어머니의 예방적 처우와 간호 즉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에, 어머니는 더욱 주의 깊게 아이를 살펴야 했다.

④ 불가능에의 도전, 신여성의 ‘어머니 노릇’

그러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올바른 양육법은 여성을 좋은 ‘어머니’로 만들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양육법의 실천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것 먹이는 법”을 살펴보자. 새로운 모유수유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아기의 개월 수와 몸무게, 그리고 규칙적인 수유간격이었다. 즉 태어난 지 이틀이 채 되지 않은 아이는 하루 4번 젖을 먹고 그 사이에는 맹물을 끓여 먹어야 하는데 설 탕물을 주어서는 안 되며, 3일부터는 의사의 지시대로

호법”, 『신여성』 6권 6호(1932년 6월), pp.70-71.

42) 이정호, “아동문제講話(5) 갓난애기 재우는 법”, 『신여성』 6권 6호(1932년 6월), pp.64-65. 이상의 내용은 앞서 『신여성』 2권 3호(1924년 3월)에 실린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43) 이정호, “아동문제講話(5) 갓난애기 재우는 법”, 『신여성』 6권 6호(1932년 6월), pp.64-65. 이상의 내용은 앞서 『신여성』 2권 3호(1924년 3월)에 실린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44) 이선근, “요체에 조심할 어린애기 섭생법”, 『신여성』 6권 5호(1932년 5월), pp.71-73.

45) 이선근, “요체에 가장 만흔 아동의 소화불량증, 그 증세와 간

46) 이정호, “입학시험과 어머니의 주의”, 『신여성』 6권 3호(1932년 3월), pp.60-63.

47) 이선근, “아동과 위생: 백일해 이야기”, 『신여성』 6권 11호(1932년 11월), pp.78-80.

48) 이선근, “기아와 기생충 문제”, 『신여성』 6권 10호(1932년 10월), pp.58-60.

49) 이선근, “아동과 위생 아동의 기생충문제”, 『신여성』 6권 9호(1932년 9월), pp.66-68.

2-4시간 간격으로 주되,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체중에 따라 가감해서 먹어야 한다. 이때 어머니는 반드시 봉산 적신 약솜으로 “젓꼭지와 아기의 입안을” 깨끗하게 닦아야 했다. 과학적인 모유수유는 시계, 체중계, 봉산수, 약솜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가능한 것이었다.⁵⁰⁾

또한 ‘어린아이 기르는 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유의 ‘良否’여부 및 그 소독법과 함께 우유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빨리 말고 손등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확인해야 했다. 또 우유에는 단맛이 부족하므로 아이가 잘 안 먹는데, 이럴 때는 조미료로 설탕, 자양당이 적당한데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되므로 2-5%가 적당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매 수유시마다 2-5%의 설탕이나 자양당이 섞인 우유를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 여기에 우유의 소독법, 우유 良否의 감별법, 연유영양법, 연유의 良否감별법, 분유영양법, 분유감별법을 익혀야 했다.⁵¹⁾

이와 같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어머니 노트’이 현실과 매우 유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동 의복에 대하여 논하는 다음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어머니의 의복에 대한 무지는 자녀의 발육의 지체, 신체의 저항력의 약화, 질병의 유발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문제가 되기에 어머니는 적절한 의복을 고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했다. 먼저 어머니는 모사, 견사, 마사, 목면사로 크게 나뉘는 의복지질의 화학적·이학적 性狀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며, 빛에 따라 온도 흡수율이 다르므로 더울 때는 ‘흰빛’을, 추울 때는 ‘찌면 빛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것이 피복상의 특징이라면 아동의 개개인의 특징 즉 체질, 감각의 銳鈍, 습관, 동작, 연령에 따라 의복을 선택하여야 했다.⁵²⁾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남용되는 무수한 전문적 용어 속에서, 신여성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양육방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녀들의 ‘어머니 노트’는 길을 잃게 된다.

⑤ 학부모, 신여성의 새로운 어머니 노트,

신여성의 어머니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녀교육에의 적극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어머니의 임무였다면 이제는 자녀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널리 알리는 신문은 아동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육적 자료이기에 어머니는 아동에게 신문 읽는 법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그러나 ‘어머니 노트’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효용가치가 높은 신문의 중요성만을 역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동이 신문의 3면에 실린 연애나 범죄에 관한 내용을 접하지 못하게 차단해야 함은 물론 신문을 ‘스크랩·썩’(발취장)에 모아서’ 지도함으로써 보통학교 교과서 이상의 실익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했다. 또 이러한 뉴스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장은 ‘식사’ 시간이며, 한 주간 뉴스에 대한 ‘문답놀이’ 즉 “매주 어느 요일의 한날을 작정하여 과자나 과일가튼 것을 사다 늦코 한가족이 전부 모여앉아서 「뉴스 썩」을 하는 것이 조혼 방법”이라는 조언 또한 잊지 않았다.⁵³⁾ 학부모를 위한 친절한 안내문으로는 1학년 학생을 둔 초보 학부형의 행동지침과⁵⁴⁾ 여름방학 때 어머니의 주의사항⁵⁵⁾ 등이 있었다.

학부모로서 어머니의 역할에는 도시락 싸기가 추가되었다. “어린사람이 학교에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점심은 “어머니로서 가장 주의하여 담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어서, “어머니 되신 분은 날마다 어린학동에게 싸주는 점심을 그렇게 훌륭하게 해주어 그들의 마음에 가장 훌륭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다시 업는 낙으로 역일 만치 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어머니 역할수행은 위생적이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는 세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⁵⁶⁾ 또한 1920년 이후 갑자기 뜨거워진 입학 열기는 수험생을 둔 어머니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다. 『신여성』

50) 이금진, “모유와 유아”, 『신여성』 7권 6호(1933년 6월), p.86.

51) 이선근, “어린 아기 기르는 법(3)”, 『신여성』 6권 3호(1932년 3월), pp.71-75.

52) 이정호, “아동과 의복”, 『신여성』 6권 11호(1932년 11월), pp.63-68.

53) 이정호, “어머니란: 아동문제講話(8) 아동과 신문에 대하여” 『신여성』, 6권 10호(1932년 10월), pp.61-63.

54) “일학년생 어머니에게”, 『신여성』 7권 6호(1933년 6월) p.86.

55) “夏休中兒童教育法十條”, 『신여성』 6권 8호(1932년 8월), p.91.

56) 이정호, “아동문제講話(6) 아동과 점심”, 『신여성』 6권 7호(1932년 7월), pp.63-65.

은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지식으로 '학교선택의 주의, 학과준비, 위생상 주의'는 물론 "대범하고 세심하게", "솔직하게", "침착 또 성실하게"라는 하위 제목으로 나누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시험결과를 알고 난 이후 자녀를 대할 때의 어머니의 얼굴표정에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자녀에게 필요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그 주의사항을 세심하게 전달하고 있었다.⁵⁷⁾

자녀의 입학시험을 준비시키고, 방과 후 일상을 규율 있게 가르치고, 방학을 유익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은 신여성의 어머니됨에서 매우 중요한 한 영역이었다.

V. 결론

1992년 공포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가 남녀 모두의 공통필수 교과목이 되기 전까지 가정 교과목은 여학생을 위한 교과목이었으며, 그 교과 내용은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식이 수록되어 있었다. 여학생만을 위한 과거의 '가정' 교과목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필요한 덕목과 어머니, 주부로서의 정체성과 그 구체적 행위를 학습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가정 교과목은 과거와 현재의 여성과 여성의 역할, 그리고 흔히 여성의 공간으로 일컬어지는 '가정(家庭)'에 대한 제보를 탐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여학교가 턱없이 부족했던 한말과 식민지 시기 여성교육은 학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과 잡지 같은 인쇄매체 역시 여성교육의 장이었다. 개화기 적지 않은 신문이 순한글본으로 발행된 주목적의 하나가 여성을 독자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고, 식민지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을 위한 여성잡지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시기 대표적 여성종합잡지인 『신여성』은 비록 속간된 후 상업성이 짙어지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잡지 『신여성』은 대중적인 여성계몽의 실천을 목표로 발행되었던 여성을 위한 또 하나의 교과서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신여성』에 실린 여성교육을 '모

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근대가족을 구성하는 핵심어의 하나인 '모성'은 근대가 발화되는 개화기 이후부터 여성에게 꾸준히 요구되었으며, 식민지 시기 본격적으로 논해졌던 현모양처주의에는 전통적 여성관이 수용된 부분도 있었으나 그 구체적 행위의 지표는 '서구' 혹은 '과학'에 있었다. 따라서 동시대에 발행된 가사교과서의 육아단원과 『신여성』의 모성담론은 매우 흡사하다. 절대적 권위를 확보한 과학은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여성은 본질적으로 '어머니'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발달된 의학기술은 임신과 출산 과정을 세밀히 그리면서 이 과정에 내재된 위험성을 통해 모성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배운 여성인 '신여성'은 새로운 '어머니 노릇'을 실천해야 했다. 어머니는 양육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해야 했으며, 질병의 징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하여 자녀의 몸을 계속 주시하여야 했다. 의학에 의해 밝혀진 무수한 '질병'을 비켜가야만 하는 과정 속에서 양육은 세상에 가장 위험한 일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문가에 의해 제시되는 양육법은 실천이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양육법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머니의 '교사'로 남게 된다. 또한 신여성의 주된 어머니 노릇중의 하나가 학부모로서의 역할이었다. 이와 같은 어머니 노릇을 설명하는 의학적·교육적 지식은 모두 전문가 집단들의 처방이었다.

『신여성』을 통해 제시되는 어머니 노릇은 하나의 '표준'을 제시하는 효과를 낳고 있었고, '신가정'에는 이 표준적 어머니 노릇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여성은 천성적으로 내재된 모성성을 바탕으로 자녀양육에 전념하면서 잠재된 '모성애'를 발화시켜야 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듯이(매릴린 엘름, 2003:92), 식민지 시기 과학적 양육법으로 무장된 신여성의 어머니됨은 짧은 치마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도시를 배회하던 '모던-셀'을 가정으로 귀가시키고 있었고, 동시에 미래의 동량인 아이를 국민으로 길러냄으로써 안정적 사회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여성』에 나타난 모성담론과 그 구체적 어머니 노릇은 일상의 어머니의 목소리와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57) 이정호, "입학시험과 어머니의 주의", 『신여성』 6권 3호(1932년 3월), pp.60-63.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일면은 당시의 가사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학적 양육법을 통해 제시되는 어머니 노릇에 대한 고찰은 '모성'과 '어머니됨'이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 앞으로의 차후 연구에서는 사회교육의 한 형태로 진행된 어머니 교육이 일본인에 의해 쓰인 당시의 가정·가사교과서의 교과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가와모토 아야 (1998). 조선과 일본에서의 현모양처 사상에 관한 비교연구: 개화기로부터 1940년대 전반기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성 (1994). 개항기 개신교 의료선교와 몸에 대한 인식들의 '근대적' 전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2000). 식민지 시기 가족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 어린이, 모성 형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8, 71-105.
- 매릴린 엘름 지음 이호영 옮김(2003). 『순종 혹은 반항의 역사: 아내』시공사.
- 이승원 (2000). 근대 계몽기 서사물에 나타난 '신체'인식과 그 형상화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미경 (2004a). 1920-30년대 현모양처에 관한 연구: 현모양처의 두 얼굴, 되어야만 하는 '현모', 되고 싶은 '양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75-93.
- 전미경 (2004b).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3), 1-25.
- 전미경 (2005). 1900-1910년대 가정교과서에 관한 연구: 현공립 발행 「한문가정학」, 「신편가정학」, 「신정가정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1), 131-151.
- 조은 이정옥 조주현 (1997).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형근 (1997). 일제시대 한국에서의 의료체계의 변화와 그 사회적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현숙. (2003). 여성국민 만들기로서의 남경정부시기 중학교과서: 국문, 공민, 역사, 가사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양사연구, 83집, 81-114.
- 천성림. (2003). 1920-30년대 중국지식인의 '모성' 담론과 '모성보호' 논쟁. 중국사연구, 24집, 207-245.
-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 윤대석 옮김 (2002),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 미즈다 히데코(松田秀子) (1998). '모성'을 둘러싼 언설. 日本文學協會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會, 『青鞜』を讀む, 學藝書林.
- 묘타 가즈에(牟田和恵) (1996). 『戰略としての家族: 近代日本の國民國家形成と女性』. 新曜社.
- 오카노 유키에(岡野幸江) (1998). 흔들리는 가족신화. 日本文學協會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會, 『青鞜』を讀む, 學藝書林.
- 요시카와 토요코(吉川豊子). 연애와 결혼(엘렌 케이)과 성과학. 日本文學協會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會, 『青鞜』を讀む, 學藝書林.
- 푸코 이정우 해설 (1993a). 『담론의 질서』. 새길.
- 푸코 홍성민 역. (1993b) 『임상의학의 탄생』. 인간사랑.
- 코야마 시즈코(小山靜子). (1990). 『良妻賢母といふ規範』, 勁草書房.
- 코야마 시즈코(小山靜子). (2001). 『子どもたちの近代: 學校教育と家庭教育』. 吉川弘文館.

〈국문요약〉

이 연구는 『신여성』에 실린 모성담론을 통해 식민지 시기 어머니 노릇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특징과 함께 모성담론의 논리적 토대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담론분석의 연구방법으로 당대 가장 대표적 여성잡지인 『신여성』을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여성』에 실린 모성담론의 내용은 ①여성의 어머니됨, ②아동관, ③우생학, ④아동양육 및 교육, ⑤아동 질병 및 간호, ⑥임신과 출산의 내용으로 나뉘지며, 이것은 당시의 가사교과서의 육아단원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모성담론의 집필진은 문인을 포함하여 대부분 의사·박사와 같은 전문가(experts)들이었다.

둘째, 모성담론의 주장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논리적 토대는 ①어머니로서 여성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여성교육의 주장, ② 모성은 여성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성과학의 주장, ③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내재된 위험과 질병을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의합담론의 주장이 있었다.

셋째, 식민지 시기 모성담론의 특성은, ①잡다한 어머니 노릇의 나열, ②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찰에 대한 강조, ③ 질병이 내재된 양육에의 위험성 강조, ④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어머니 노릇의 제시, ⑤새로운 어머니 노릇으로 강조되는 학부모 역할로 정리할 수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05년 5월 9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5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5월 19일